



# 오픈데이터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 김 태 은\*

## 1. 개 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완료에 따라 다음 15년간의 범세계적인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의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올해 9월 개최되는 UN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SDG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17개의 목표(Goals)와 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를 설정하고 있다.

MDG의 설립 및 이행과 관련 하여서 ICT의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MDG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ICT 기술 없이, 2014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까지 언급된 바 있다.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한 ICT의 촉매적 역할을 인정하여 세부목표 8의 타깃 중 하나로 명시한 바 있으며, 실제로 MDG 목표 달성 지수 15(무선전화보급), 16(인터넷보급)의 높은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ICT부문 자체의 목표도 달성했을 뿐 아니라 다른 MDG 달성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041, lmy94@kisdi.re.kr

〔그림 1〕 SDG의 17개 목표



출처: www.un.org

MDG이후 15년간의 ICT부분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포괄적인 개발의 증진을 위한 ICT의 역할과 활용범위를 엄청나게 확대한 만큼 SDG의 이행에 있어 개발촉진자로서 ICT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sup>1)</sup>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에는 ICT의 중요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부재한다. 이는 ICT의 확산과 융합 및 범용화에 따라 이미 개별목표와 세부목표 내에 내포되어 버린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ITU를 비롯하여 유네스코, UNCTAD 등 유엔 기구들은 현재 SDG의 17가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중 ICT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이 없으며 4개 분야의 간접명시<sup>2)</sup>는 충분하지 않으며 ICT는 향후 개발 아젠다에서 더 많은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바 있다. 또한 ITU는 SDG의 이행을 점검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표로서 ICT

1) UNGIS(정보사회를 위한 유엔 그룹)는 2013년 5월 공동성명을 통하여 Post-2015 개발의제에서 개발 촉진제로서의 ICT의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WSIS 결과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축적해온 지식, 경험, 전문성 등이 Post-2014 개발목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2) 교육, 여성권한강화, 저개발국가에 적정 비용에 ICT/인터넷 액세스 제공, 목표 이행을 위한 수단

관련 항목을 제안하고 있으며,<sup>3)</sup> SDG 목표와 WSIS 액션라인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관련성과 시너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sup>4)</sup>

최근 높은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오픈데이터도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UN이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데 이어, 월드뱅크가 2015년 8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오픈데이터”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의 오픈데이터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월드뱅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오픈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겠다.

## 2. 본 문

오픈데이터는 구체적으로는 개방적인 정부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이며,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확산을 기반으로 “누구나 어떠한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변경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데이터는 투명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참여 및 포용성을 제고하여 높은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오픈데이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이니셔티브인 SDG 의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UN에서의 논의와 보고서<sup>6)</sup>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오픈데이터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UN 보고서는 “데이터혁명(data revolution)을 모바일폰이나, IoT와 같은 신기술과 질적자료(qualitative data), 시민창출자료(citizen created data), 지

3) ITU(2015)

4) WSIS Forum(2015)

5) 2013년에 G8은 오픈데이터차터(Open Data Charter)에 서명하고, post-2015의 핵심에 데이터혁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

6) UN(2014)

각자료(perception data)와 같은 새로운 정보원 등의 출현에 따라 데이터양과 데이터 창출속도, 데이터창조자의 수, 데이터 확산, 데이터를 가진 사물의 범위등의 폭발적 증대와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정의하고 있다. UN의 보고서는 이러한 데이터 혁명이 평등성을 위한 혁명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의 주요 원칙은 데이터의 질과 진실성, 데이터의 상생성, 데이터의 시의성, 데이터 투명성 및 개방성, 데이터 이용가능성 및 큐레이션,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데이터 거버넌스와 독립성, 데이터 자원 및 역량, 데이터 권리 등이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오픈데이터와 연결된다.

오픈데이터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Open data Institute 의 보고서<sup>7)</sup>에 따르면 오픈데이터는 더욱 효과적으로 원조재원 조달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개발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개발 과정을 추적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동 보고서는 또한 오픈데이터가 혁신,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월드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오픈데이터가 SDG의 17개 목표 전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범위의 개선, 투명성, 책임성 및 시민참여의 증대, 정부 내의 정보공유의 개선 등에서 오픈데이터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았다. 첫 번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오픈데이터는 새로운 사업의 창업지원, 기존기업운영의 적정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소비자이익 제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증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오픈데이터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뿐 아니라, 오픈데이터 구인-구직 연결 플랫폼, 오픈데이터를 통한 교육, 훈련 등이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범위, 효율성, 효과성의 제고는 오픈데이터와 SDG의 세부목표들의 달성과의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시스템은 오픈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과의 연결, 의료검진제공, 의료비의 억제, 감염

7) Open data Institute(2015)

성 질병에 대한 교육, 처리, 예방 등을 통해 강화된다. 교육과 관련하여 오픈데이터는 양질의 교육의 가용성 보장, 교육재정의 부패 감소, 학교운영의 개선, 부모에게 학생의 교육기회에 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기아와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오픈데이터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개선을 통해 모든 규모의 농가를 지원하고, 농부들이 더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할 수 있게하고 소비자권한을 증대시킨다. 오픈데이터는 새로운 녹색혁명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까지 평가되고 있다.

투명성, 책임성 및 시민참여의 제고는 부패를 공개하고 예방함으로써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공공행정에서 혁신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해의 감소, 자연자원보전,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구축도 지원하는데, 이는 오픈데이터의 투명성이 환경과 관련한 부정적인 사업 및 실행에 대한 공공의 견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최첨단 스마트 시티, 현대적인 도시계획과 도시인프라의 개선, 도시 교통의 전환 및 재난관리에 있어서 오픈데이터가 필수적이며 이는 정부 내의 정보공유의 원활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계적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인 SDG를 위한 오픈데이터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이미 진행 중인 국가별 오픈데이터 프로그램의 성과를 통해 그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다. 하지만 오픈데이터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의 실질적인 이행과 관련해서 재정적, 기술적 문제들은 물론이며, 명확한 정책적, 법적 지침의 부재, 정보격차, 정보공유에 부정적인 정부 조직문화, 오픈데이터 수요와 적절한 데이터간의 불일치, 낮은 데이터의 수준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직면하고 있다.

G8을 포함한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오픈데이터의 잠재적 경제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SDG의 수립과 이행의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오픈데이터에 주목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하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다양한 현안 중에서도 정보격차라는 심각한 장애요인과 직면하고 있다.

오픈데이터 순위<sup>8)</sup>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수준이나, IT발전수준에 있어 낮은 순위

8) <http://barometer.opendataresearch.org/index.html> open data barometer 2015

에 있는 국가들이 오픈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낮은 순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순위에서는 국가 및 조직 문화, 정책의 도입시기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었겠지만 오픈데이터의 활용에 필수요건이 될 정보통신부문의 낮은 수준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정보격차 해소 노력과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부자(Data haves)와 데이터 빈자(data have-nots) 간의 격차와 불평등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오픈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는 새로운 불평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동통신, 브로드밴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아직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 인구들도 많으며, 높은 비용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데이터 격차를 창출한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핵심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거나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데이터 관리가 고르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다.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곳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시민만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전적인 접근성이 전적인 권한강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언론인이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이 오프라인 중개자로서 시민과 데이터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월드뱅크는 정부들이 지속가능한 오픈데이터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9개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시하였다. 이에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한 오픈데이터 사용 지원, 무료 온라인으로 데이터 이용 가능, 정부 데이터자원을 위한 데이터 인벤토리 발간, 현재 및 잠재적인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정부로의 피드백 채널의 설립,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세트의 우선 순위화, 주요 정부 데이터세트의 질적이 문제 해결, 상세하고, 세분화되고 포괄적인 데이터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된다.

### 3. 결 어

이번달에 개최되는 UN 총회에서 채택될 SDG는 빈곤퇴치뿐 아니라 환경, 에너지, 평화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이행에 활용될 중요한 공공자원인 데이터의 잠재력과 효과는 매우 크다. 오픈데이터는 자연스러운 것(by default), 정상적인 것(new normal)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아직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그 추진은 미흡한 상황이다. 오픈데이터의 잠재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데이터격차는 개발국가의 발전의 격차 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개발목표의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월드뱅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들이 오픈데이터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 3.0을 통해 정보 공개, 시민참여의 확대,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오픈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역량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SDG 이행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Open Data Institute (2015).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Open Data.
- ITU (2015). ICT indicators for the SDG monitoring framework.
- Partnership on Measuring ICT for Development (2014). Background note prepared by the: Joint proposal of ICT indicato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indicator framework.
- WSIS Forum2015 (2015). WSIS -SDG Matrix Linking WSIS Action Lines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Bank (2014). Open Data for Economic Growth.

\_\_\_\_\_ (2015). Open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barometer.opendataresearch.org/index.html>

<http://www.sustainabledevelopment.un.org>

<http://www.un.org>